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재웅
동국대학교 교수

어느덧 12월이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간다. 거리에 구세군 종소리 들리고 성탄트리도 반짝인다. 예전에 그 많던 크리스마스카드와 캐럴송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구두둑이 소년과 옛장수 아저씨와 연하장 그려 팔던 예쁜 소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가수 이선희가 부른 〈아, 옛날이여〉마저 노래방 기기나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시대. 디지털 기기 속으로 들어간 게 어디 한 둘이라. 세상 참 빠르게 변한다. 손안의 스마트폰 속으로 세상은 몸을 꾸기며 들어간다. 잠깐 사이다. 그 잠깐 사이에 세상은 천지개벽하고 우리는 어리둥절해진다.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식 총량은 73일마다 두 배씩

저무는 한 해를 바라보며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너무 빠르다. 디지털 종족들은 생존 가능성이 높지만 아날로그 종족들은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게 마련이란단다.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디지털 진화론을 만든다.

그래도 오늘은 잠시 아날로그 식 삶이 그리기도 하다. 회룡고조(回龍顧祖). 먼 길 달려온 산줄기가 제 온 곳 돌아보듯 잠시 지나온 시간 생각해본다. 조금 있으면 언론들은 올해의 10대 뉴스를 경쟁하듯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시간 열차 속에 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지나간 시간의 풍경들은 이제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내게서 떠나 허공의 품으로 들어간다. 그걸 수록 '오직 지금'만이 존재의 빛나는 전제임이 절실해진다. 연말이라는 추상적 '끝'이 안개 진군하듯 다가오는 시간엔.

가만히 내게 물어보니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속도구나. 무리지어 달리는 말을 처럼 나 역시 그 대열에 끼어 질주해왔지. 시간의 바람은 무서운 속도로 휘릭 지나가고 불붙어달라는 손들 이루 다 잡을 수 없었네. 그렇게 됐어. 갑오년 올 한해, 바

쁘다는 말 입에 달고 살아온 건 분명하다.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니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 땅의 허망한 죽음을 이며 숨 가쁜 삶들은 망각의 저녁 강 속으로 점점 가라앉아 가는구나. 세월호의 꽃다운 생명들, 분신한 아파트 경비원, 고독사한 옆집 할아버지, 직장 구하지 못한 늙은 청년들, 거리에 어슬렁거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유형들.

그래도 좋아, 나도 좀 바빠 봤으면... 노동열차를 놓친 '배회족'들은 오늘 저녁 노을이 더운 감북고 처량하다. 그들 신탁엔 매년 불안과 초조가 올라오지. 질주해도 좋아. 난 지속적인 속도가 필요해... 그들은 의자에 앉아서 가상의 속도를 꿈꾸며 2000원이나 오른 댄뱃값 걱정을 잠시 잊는다.

탐승에 성공한 '질주족'도 행복하지 않다고 투덜대기는 마찬가지다. 나 역시 비슷하지 않은가. 목표와 성과의 기관차에 올라타 전력질주만 했을 뿐 잠든 아내 흰머릿결 이제야 새어본다. 오늘도 늦네요, 카톡 문자만 그 몇 번이던가.

'해마다 해마다 꽃은 피어 그 모습 비슷도 하지만, 해마다 해마다 사람의 모습은 같지 않구나(年年世世花相似 世世年年人不同)' 세월의 무상함과 나이 드는 서글픈 노래하는 당시(唐詩)의 빛나는 명구 비로소 실감하니. 내 근본의 팔할이 시간이란 걸 불현듯 알겠구나. 해서, 저무는 해 우뚝키니 바라보며 나는 시간을 스के치해보는 것이다.

시간은 정지하다. 배회족이건 질주족이건 그들 뒤편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 남은 목숨시간 이제부터 줄어든다. 지금이 순간이 나의 남은 인생에서 제일 짧다. 앞으로는 젊음의 그림자가 점점 짧아진다. 그러니 소중한 것은 오직 지금뿐.

그림자가 몽땅연필처럼 짧아져 스러져가는데 지나온 기차역에서 만나지 못한 그녀를 애달파한들 무었하리. 여기 3차원 우주에서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 오직 지금만이 존재의 전부. 지나온 지금은 과거이고 다가올 지금은 미래인 것이다. 배회족도 질주족도 속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사람들과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행복'이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실제적인 행복의 정의이자 실현이다.

한 해가 저문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자.

의료칼럼



김대웅
광주 북구우리들병원 원장

겨울 산행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될 수 있으면 혼자 산행을 하지 말고 3명 이상 경험자와 동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겨울철 등산에서 특별하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산행 중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저체온증이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한다. 겨울철 산행은 평소와 다르게 바람이 세고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평소의 옷차림으로 등산하다가 저체온증에 빠져들기 쉽다. 체온이 갑자기 떨어져 지면 처음에는 오한 증세가 나타나며, 체온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을 한다. 심한 어지러움이 생기고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의식까지 희미해진다. 심해지면 사지마비, 호흡중단,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 있다.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 더 이상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기온이 낮아지면 지체 없이 산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산행 중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낙상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이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골다공증은 골다공증 자체의 문제보다는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젊은 사람들은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 심한 외상으로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압박골절이 발생한다. 엉덩방아를 찧거나, 가벼운 물건을 들다가 빠듯하거나 심지어는 기침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 엉덩방아를 찧거나 가벼운 외상을 당한 경우 등은 압박골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골다공증으로 인해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보조기를 차거나 몇 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뼈가 붙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성형술이 개발되어 시술 다음날부터 보행이 가능하다. 척추성형술은 주사기로 인공 시멘트를 넣기 때문에 30분 정도 짧은 시간에 흉터도 없고 간단하게 시술한다. 특히 전신마취 없이 부분마취로 시술하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하다.

눈이 내리는 날은 어디든지 떠나고 싶을 것이다. 아름다운 설경과 함께 산행을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철저하게 건강을 체크하고 자기의 상태에 맞는 산행을 한다면 아름다운 계절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겨울철 산행에서 최고의 적은 자만이다. 겨울철 산행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경험은 거대한 자연을 정확할 수 없다.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겸손한 자세로 겨울철 산행을 한다면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자연도 즐기면서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1석3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고



안웅원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행복한 목수' 돼 보실래요?

에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약자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계절이다. 지난 10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 특히,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얼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엄마와 함께 생을 마감한 12살 딸의 소식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한다.

세계경제 순위 13위, 국민 1인당 GDP 2만8천 달러, 국가예산의 30%인 고용·복지예산이 117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암울한 소식을 계속 접해야 하며,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 산업화에 따른 압축성장과 대기업 수출위주의 국가경쟁에서 나타나는 사회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사회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 해답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20대 청년 고용률 55.8%다.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워킹푸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으로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선 노·사·민·정 사회적 범시민적 협약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광주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업도 사회적 합의 속에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 일자리를 통한 복지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광주시는 수년 전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겨울나기가 버거운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 최근엔 알고 지내는 한 동료로부터 “연고도 없고 서울에 사는 한 노부부가 '시골의 빈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부탁을 해 허락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노부부는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살던 집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정주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해 더 이상 수도권에 살 수 없었다고 한다. 주거복지 문제도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

제를 보여주려는 사례다.

광주시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과 연계한 공동체 주택건설로 친환경 주거와 사회적 공동체 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재능 기부를 통한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봉사단'을 운영,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공무원 자신이 먼저 기부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11년 통계청 조사결과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2.6%)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18.6%)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2.9%) 순으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현상정정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제2의 '행복한 목수 봉사단'을 만들어 보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문화전당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쏟아야

지역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내년 9월 개관에 자질이 우려된다니 심히 걱정스럽다. 사업 추진 이후 슬한 우려극점을 겪으며 이제 마무리단계까지 왔으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이 보류된데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무산됐다고 한다.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그때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별법은 문화전당의 위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국가로 정한 박해자 의원 대표발의안과 별도 법안에 위탁하자는 정부안 등 두가지다. 지역사회 여론은 전적으로 박 의원 안을 희망하고 있다. 이제 갓 출범하는 문화전당의 탄탄한 토대 구축을 위해 국가 소속으로 정부

의 지원이 일정기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재정 부담을 덜고 싶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전당은 광주만이 아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다. 그리고 광주의 성장동력산업이기도 하다. 지역민들은 오는 2023년까지 5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최고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해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을 꿈꾸고 있다.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절박한 것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별법이 현실화돼야 전당 운영 인력 423명을 뽑고 개관 준비를 할 수 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 통과시켜야 할 책무가 더욱 분명해진다. 아당과 공조를 취하되 호남 출신 여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특별법이 성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수GS 기름 유출사고 은폐·조작했다니

세계적 석유화학기업을 표방해온 GS칼텍스가 올해 초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 당시 저지른 행태는 그야말로 저질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 유출량을 대거 축소하는가 하면 허위 정보 제공, 방제작업 방해, 위험물질인 나프타 유출 사실 은폐 등 작태를 저지른 것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우이산호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1월31일 오전 우이산호가 송유관과 충돌할 당시 최소 10만ℓ 이상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됐고 이 가운데 맹독성 물질인 나프타가 상당량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 800ℓ만 유출됐다고 허위 공표했다고 한다. 오염 방제의 '골든 타임'을 무효화시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를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나프타가 다량 유출된 사실을 아예 덮어 방제작업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및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

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임직원들은 일일 작업일지까지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GS칼텍스 측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해경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한다. 사고 당일 GS칼텍스 상황을 찾아가던 여수해경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러한 범법행위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고용노동부의 평가에서 '공장 안전운영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전불감증도 모자라 허위 조작과 은폐에다 수사마저 방해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GS칼텍스는 범법은 물론 파렴치한 작태가 드러난 만큼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 당국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라면 여수와 전남도민, 나아가 국민적인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無等鼓

마국에서 유일하게 커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하와이다. 하와이에선 특산물이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코나커피가 유명하다. 하와이 코나(Kona) 섬에서 재배한 커피 품종인 코나커피는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 예멘의 모카와 더불어 세계 3대 커피의 하나로 친다.

마카다미아 역시 하와이의 유명한 특산품이다. 땅콩 비슷한 견과류인데 호주가 원산지다. 지금은 하와이산이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특히 초콜릿과 쿠키에 많이 쓰인다.

'마카다미아 초콜릿'은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언젠가 하와이에 가게 되면 몇 년 전 그랬듯이 난 또다시 코나커피와 마카다미아 초콜릿을 사 들고 올 것이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는 단가가 비싼 편이며 믹스 너트에도 잘해야 1% 정도만 들어가는 귀하신 몸이다.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 재료 101' 중 하나라 선정되기도 했다.

한반도의 기후 패턴 일부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마카다미아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된다.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이

남해안에 상륙한 대신 갈굴 특산지를 내준 제주는 마카다미아 등 새로운 열대작물 재배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다.

얼마 전 라면에 털 먹었다며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라면 상무'가 있었다. 이번엔 땅콩(마카다미아) 한 알로 비행기를 후진시킨 '땅콩 부사장'이 등장했다. 대한항공 조현아(40) 부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조 씨는 지난해 뉴욕에서 인천행 여객기 승객의 90%를 차지했다.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 사무장이 건넨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두고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며 호통을 쳤다. 접시에 담아 음료와 함께 건네야 하는데 봉지째 줬다는 것이 발단이였다. 급기야 여객기를 후진시킨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이륙시키는데 호통을 쳤다.

독일의 한 신문이 조흥 쉬인 기사를 내보냈다. "땅콩 서비스 때문에 분노한 항공사 사장 딸이 여사무장을 바다에 던지고 멋지게 이륙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의 딸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갑질'이 멈출 날은 언제인가. /이홍재 논설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7-9500)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